

어린이 책꽂이

▲내 생일에 공룡이 왔어! =오늘은 울보 사냥이의 생일날이지만 생일파티를 해주기로 한 엄마가 나타나지 않아 또 울고 만다. 친구들이 준비한 생일파티에서 사냥이가 케이크를 찌꺼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휴이넵·9천원)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 =네덜란드의 동화작가 헝스 카위어가 씌운 세한 감수성과 유머를 바탕으로 쓴 동화. 할머니의 장례식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긴다.

(한겨레아이들·9천원)

▲두근두근 사랑해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남녀간의 사랑 등 사랑을 다양한 모습과 빛깔을 갖고 있다. 가장 일차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남녀간의 사랑을 이몽룡과 선춘향의 이야기를 통해 그려냈다.

(아이세움·8천500원)

▲과학시간에 사회공부하기 =과학의 사회적 의미와 역할, 사회 구성원의 과학적 책임을 되짚어 보는 청소년 교양서. 30여 컷에 이르는 다채롭고 풍부한 사진자료가 과학과 사회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준다.

(웅진주니어·1만2천원)

▲아하! 우주상식 =태양은 왜 뜨거울까? 별은 어디서 태어날까 등 우주에 관한 초등학교 수준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초등학교 교과과정과 과학교과서에 등장하는 우주상식을 관련지식과 함께 묶어 소개하고 있다.

(애플비·8천800원)

7년간 야생동물과 함께 한 생태연구

야생속으로 델리·마크 오웬스 지음



그러보라.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7년 동안 동물들과 함께 생활했다.

‘야생 속으로’는 당시 대학원생이었던 20대 생태학자 델리와 마크 오웬스 부부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야생동물과 생활한 7년간의 기록이자, 야생의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연구했는지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틱한 자연다큐멘터리이다.

아프리카의 사라져가는 야생동물을 연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 재산을 경매에 붙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필사적으로 모은 돈 6천 달러를 손에 쥐고 1974년 두 사람은 무작정 비행기에 올랐다. 그들이 택한 곳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사람이 살지 않는 오지-중부 칼라하리 ‘디셉션 밸리’.

이곳은 아일랜드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석기시대 부시맨이 살았던 때를 제외하곤 사람이 살지 않은 오지 중의 오지다. 저자는 그곳에서 야생 동물들의 지혜와 우정, 생명의 경이로움을 확인한다.

두 마리의 수사자 중 한 녀석이 마취 총을 맞고 쓰러지자 다른 녀석이 깨어날 때까지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모습, 건기와 가뭄이 찾아오면 서로 다른 영역을 지키던 사자 무리들이 생존을 위해 영역을 공유하며 함께 쉬는 광경을 보았

다. 갈색 하이어나가 홀로 지내면서 무리를 짓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는데 새끼를 함께 키우는 공룡육아 굴을 발견하고 모든 의문을 풀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연보호 구역이 없으면 언제든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는 인간의 규칙을 알리 없는 야생동물의 처절한 죽음, 오랜 가뭄으로 수십만의 누들이 물을 찾아 대이동했지만 구제역을 방지한다며 친 인간의 울타리에 막혀 수천 마리가 때죽음을 당하는 광경도 목격한다.

이처럼 인간과 동물의 구분도 무색케 하는 저자들의 생명에 대한 성찰이 책 곳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또 순진한 생태학자들의 야생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개발 세력과의 처절한 투쟁도 엿볼 수 있다.

1980년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야생의 경험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은 “우리 인간은 자연의 생명들이 단지 지구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만 한다” 그들의 삶을 빼앗고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몰아낸다면 인간 또한 지구에 오래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가장 훌륭한 자연도서로 주어지는 존 버로스 자연문학상(John Burroughs Medal)을 수상, 지금까지 자연다큐멘터리 고전중의 고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다.

1986년 설립된 ‘오웬스 야생 보호 기금(Owens Foundation for Wildlife Conservation)’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자연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



델리가 아영지에서 노랑부리코뿔새에게 빵 조각을 주고 있다. 장난기 어린 눈을 가진 노랑부리코뿔새는 생김새가 우스꽝스럽지만 정말 귀엽다. (상상의 숲 제공)

계 곳곳에서 멸종위기에 내몰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다.

(상상의 숲·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윈스턴 처칠 'A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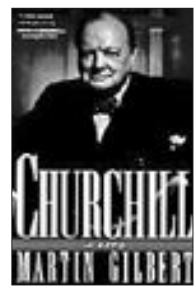
살아오는 동안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책을 꼽자면 주저없이 'Winston Churchill: A Life'라고 말하고 싶다. 영국의 헨리 홀터 앤 컵퍼너서에서 1992년 출간한 미네르바 판형인 이 책은 총 1066쪽에 달하는 종량감 있는 책으로 윈스턴 처칠경에 관한 일대기를 정치·사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영문으로 쓰인 전기이다.

이 책은 1992년도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나서 이수하던 때 경영대학원에서 추천한 책 중의 하나였다. 경영학과 정치·사학적인 전기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업의 경영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리더십과 윤리경영이 필요한 분야다.

추천된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는 과제였는데 황당하게 1천66쪽에 달하는 방대한 책이었고 무려 1주일간의 시간을 특별히 할애하여 밤낮없이 읽어 내려갔었다.

우리 시대에 존경할만한 위인들도 많지만 필자가 특히 추천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을 들고 싶다. 윈스턴 처칠경의 폴네임은 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로서 지난 2005년 파라라치에 의해 사망한 다이애나비(princess Diana)와

국가 지도자의 자질



같은 얼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처칠경은 1874년 태어나서 1965년 작고한 영국의 정치가이며 저술가이고 웅변가이면서 기자였다. 한마디로 다재다능한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처칠경은 두 번에 걸쳐 영국총리를 역임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 위대한 국가지도자로 활약했다. 1953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처칠경은 2개월 먼저 태어난 조산아였다. 그가 태어난 블렌하임(Blenheim) 공은 존 처칠(말버러 공작 1세, 1650~1722)이 스페인 왕위계승전쟁에서 프랑스를 대파한 전공으로 앤 여왕으로부터 직접 하사받은 것이었다.

그의 부친 랜돌프 처칠경(1849~95)은 뛰어난 보수당 정치가로서 재무장관 및 하원의 보수당 당수를 역임한 인물로 그에게는 항상 화제가 많았었다.

따라서 처칠경은 어린시절을 더블린에서 보냈으며, 그 후 잉글랜드의 예비학교를 거쳐 12세에 학교에 입학했다. 학교 교사의 불공평한 대우와 사교계에 바쁜 부모의 무관심으로 처칠의 어린시절은 불행했다고 전한다. 당시 처칠의 아버지는 처칠의 지능발달이 늦어 군인 이외의 직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이 전기를 읽을수록 처칠경에 대한 존경심이 일어난다. 필자는 영국 옥스퍼드 근교에 위치한 처칠경의 생가를 2006년 여름에 방문, 처칠경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책은 또 국가를 위한 충성심이 똬실 배어있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세계대전을 이끄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처칠경은 진정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몸소 실천한 영국의 정통 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영국귀족들이 나라에 대한 무한 봉사정신과 시민들을 대표하여 과감하게 몸을 던지는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쯤 되돌아 볼 수 있다면 좋겠다.

이구현 (한국언론재단 광주사무소장)



전문가가 뽑은 한국 최고의 음반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박준흠 편저



30여명의 한국 대중음악 전문가들이 뽑은 한국의 최고 음반은 어떤 걸까.

박준흠(대중음악평론가)씨가 책임 편집한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음반 리뷰’는 한국음악 사료로 꼽힐 만한 책이다.

전문가들이 뽑은 1위는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매일 그대와’ 등이 실렸던 ‘들국화 1집’(1985). 이어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 김민기, 어반날, 산울림 ‘1·2집’, 신중현과 엽전들, 한태수, 델리스파이스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년대 발매된 음반으로는 이소라 ‘눈썹달’, 브라운아이즈 1집, 그룹 두번째 달 등이 꼽혔다. 또 산울림과 김광석은 3장의 음반을 100위 안에 랭크시켰으며 서태지와 아이들, 어반날, 듀스, 패니, 유엔비 블루, 조용필 등은 2장이 선정됐다.

(산·2만3천원)

/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성형수술을 통해 바라본 의학사

비너스의 유혹 엘리자베스 하이켄 지음



‘평평한 얼굴, 하얀 피부, 오희한 코, 커다란 가슴’ 등으로 대표되는 성형수술은 여성들의 욕망과 허영을 먼저 상상하기 쉽다. 하지만 현대적 성형수술은 1차 세계대전에서 다친 남성들을 위한 재건 성형이 그 시작이었다.

‘비너스의 유혹’은 미국의 성형 수술사를 다룬 교양서다. 역사학자이자 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하이켄이 미국에서 현대적 성형수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등을 미국의 사회·문화사와 엮어 소개했다.

책은 성형수술에 대한 호기도를 높이기 위해 ‘추하면 불행해진다’는 열등 콤플렉스를 퍼뜨리는 심리학을 활용하고 잘생긴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는 당시의 통계를 이용했던 미국의 소비문화를 보여준다.

(문학과 지성사·2만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국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국의대.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7.9 급 공무원 합격 대비.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30~40대 주부특별반모집. 11월 1일(주) 야간반 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sl.co.kr 222-456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개강 11월 3일 (주,야) 주부반, 성인반 국비무료 재직자반.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체인).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44년 전통 합격률 1위. 본원출신 전국수석 (승은명님 평균 96.7점).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는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개강 11월 3일 기초이론 & 용어 해설. 광주고시학원 227-8003